

문화 아카이빙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류한조**

1. 들어가며
2. 문화 콘테이너로서 기록 분석
 - 1) 문화재현 매개로서의 기록
 - 2) 문화에 대한 기록관리 연구현황 분석
3. 문화 아카이빙 방법론의 과제
 - 1) 근본적 문제—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 2) 증거를 위한 관리와 향유를 위한 관리의 충돌 극복
 - 3) 수집방식으로서 생산의 타당성 확보
4. 문화 아카이빙의 재현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 1) 문화 아카이빙을 위한 새로운 이론체계 마련
 - 2) 재현을 기반으로 한 다중분류체계 적용
 - 3) 문화재현콘텐츠 개발 방법론 수립
5. 나가며

* 본 논문은 2013년 6월 15일, 한국기록학회 제93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방위사업청 기록연구사(kalistland@gmail.com). 주요 논저: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건축 문화재 기록을 중심으로」(공저), 『한국기록관리학회』 제9권 제1호, 2009; 「재현 중심의 기록학: 담기, 관리하기, 보기」(공저),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투고일: 2013년 6월 12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7월 25일.

[국문초록]

문화 아카이빙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적 배경과 기록학의 영역 확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상 아카이빙이나 마을 아카이빙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는 연구에 치중되어, 문화 아카이빙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은 문화 아카이빙에 있어 기록의 문화적 재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문화아카이빙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아카이빙에 있어서 기록관리자의 생산에 대해 재검토 하였으며, 수용자가 부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에 적합한 분류체계 설정과 재현방식의 아카이빙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아카이빙, 문화 아카이빙, 일상 아카이빙, 마을 아카이빙, 재현, 다큐멘테이션

1. 들어가며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고 10년 이상 지난 현재 공공부분의 기록관리는 전문요원 배치와 체계적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배치율은 과반수를 넘어섰고,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¹⁾

그러나 법령제정을 우선한 ‘위로부터의 기록관리’의 후유증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록관리는 여전히 까다롭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형편이다. 이는 기록관리가 가지는 효용성을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직에서만 필요한 딱딱한 업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기록관리연구는 이처럼 공공부문에 치우쳐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통해 학문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에 대한 기록관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한 대학교는 ‘문화자원기록학과’가 신설되면서 관련 전문가를 배출해내고 있다.²⁾

해외에서도 동경대에 2000년 문화자원학과가 신설되어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자원기록에 관한 연구는 문학, 축제, 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기록관리 이론과 충돌하거나 기술적 부분의 난해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기록관리연구는, 기록관리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주제이다. 문화가 자원으로 간주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와의 접목으로 기록학이 확장할 수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자원의 수집과 관리,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해 조직과 업무기능, 역사가치 등과 관련한 행정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의 결합이

-
- 1)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 중 전문요원 배치가 37%가량 진행되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90%에 육박하고 있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2년 3월).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평가하는 기록관리평가 결과 전체기관의 평균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년 평가결과에서 76.3점을 획득하였다.
 - 2)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은 2010년 문화자원기록전공을 개설하였다.

기록관리학계에서 이루어졌듯 문화에 대한 기록관리 연구는 사회학, 미술사학, 민속학, ICT 관련분야, 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화와 접목된 기록관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기술적 구현이 뒷받침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현재 문화 아카이빙의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록관리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문화 컨테이너로서 기록 분석

1) 문화재현 매개로서의 기록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는 도구로 문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해야 한다. 기존의 기록은 증거나 정보라는 개념에 주로 집중되어 특정 대상이나 행위와의 직접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었으나, 문화의 재현가능성은 이를 넘어서 의식이나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증거나 정보로서의 기록은 행위여부의 식별이나 특정내용의 이해에 집중되는데 반해, 문화의 재현가능성은 여기에 더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식이나 환경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증거나 정보의 재현이 한정적 재현을 의미한다면, 문화 재현은 확대된 재현에 가깝다.

기록의 문화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기록은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으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지는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중 내용은 다시 문자데이터, 기호, 이미지, 소리, 그림 등의 정보를,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내적 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맥락은 생산, 입수, 저장 또는 활용을 둘러싼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의미한다.³⁾ 내용에 해당하는 기호, 이미지, 소리 등은 개인과 집단의 의식이 녹아져있는 사회활동의 산물의 성격을 지니며, 구조 역시 소속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맥락은 주로 내용의 이해를 보조하거나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기록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생산되며,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의 문화적 배경과 방식 등이 녹아져 있다고 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의 문화는 문자나 이미지, 소리 등을 통하여 후대로 전승되거나 다른 문화로 전파되는데, 여기에서 일컫는 문자나 이미지 등은 다름 아닌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문화를 함께 봐야하며 반대로 해당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록에 접근할 때에도 그 구성요소인 내용, 구조,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기록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훌륭한 전달매체이기에 문화재현의 매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던 것이다.

재현의 대상이 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면, 개념적으로는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여 공통된 정의는 아니지만 사회학에서는 ‘지식, 신념, 예술, 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그 외의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⁴⁾로 정의 내리곤 한다. 문화는 인간의 차이와 특수성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한데 즉, 동물들은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인간은 언어나 상징에 영향을 받은 사회체계에 기초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 또한

3)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48쪽.

4) 필립스미스,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문화이론-사회학적 접근』, 이학사, 2008, 18쪽. (사회학에서도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하나로 정립되어 있기보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으며, 본고의 정의는 그 일부에 불과함).

5) 크리스첸크스,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6, 22쪽.

문화는 과거나 타 지역사람들과 묶어주거나 구분하는 원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문화를 아카이빙하고 재현하는 이유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에 의하면 언어적으로 재현되는 관습이나 습관은 기록의 형태로 전승되므로, 기록이 문화적 매개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아비투스⁶⁾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문화적 특성은 해당 시대와 문화권의 일부로 부지불식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은 기록에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기록은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요소를 재현하는 매개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는 기록을 행위의 끊임없는 재현이라는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⁷⁾, 케네스는 전통의식이나 구전과 관련된 사회적 기록에 대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다음 세대까지 전승시키는 역할을 한다⁸⁾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기록은 문화 컨테이너로서 문화를 축적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를 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스는 기록 문화는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단지 그 고유한 감정의 구조로 “기록될 당시의 문화”에 근접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감정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사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⁹⁾ 동시대의 문화구조가 기록에 반영된다는 입장으로 해석

6) 아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한국문화평론가협회 편, *문화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7) G. Yeo, “Concepts of record(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Vol. 70. No. 2, 2007, pp.315-343.

8) K.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Vol. 53. No. 3, 1990, pp.378-392.

9) 필립스미스,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앞의 책*, 2008, 262쪽.

할 수 있는데, 뒤집어보면 기록이 문화를 재현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록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속성을 내포하여 어떤 문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록을 문화 재현의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모든 기록이 문화적 대상으로 수집하고 관리될 수는 없으므로 범위를 한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록의 평가선별론의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기록을 문화재현매개로 보는 관점에 평가선별론을 접목시킨다면, 기록이 기억에 근거한 문화의 재현 역할을 수행하므로 특정기록의 폐기 혹은 수집 포기는 특정 문화와 기억의 포기로 이어지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출처주의와 원질서의 원칙은 사실상 기록의 맥락 보존을 통해 재현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도 해석가능하다.

기록의 재현가능성은 사회적 기억과의 관계로도 연구되었는데, 무엇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기억과 과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며,¹⁰⁾ 심지어 아카이브를 통제하는 것이 사회의 기억과 망각을 통제하는 것으로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¹⁾ 또한 기록에는 사회의 투영으로서 개인과 집단 및 조직 등의 요소가 혼합된 사회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입장도 있는데, 하나의 기록은 한 시대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증거로서의 기록에

10) H.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Vol. 24, 1987, 재인용: 오향녕 편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223쪽.

11) R. Rand, "Thoughts on "Archive Fever""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Vol. 7, 2010, pp.207-211.

12) H. W. Samuels, "Who control the past" *American Archivist* Vol. 49, 1986, 재인용: 오향녕 편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223-250쪽.

서 기억으로서 기록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기록학의 기존 원칙이 재검토되어 이들의 공존을 발전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기억, 증거의 관계가 과거부터 받은 관심에 비해 ‘무엇을 어떻게’란 실용적이고 구체적 접근은 다큐멘테이션 전략 이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한편 기록이 기억을 축적 혹은 망각시키거나 문화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문화를 재현한다 해도, 향유 가능한 형태로 기록의 재현 가능성을 살리려면 기록 매체 자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기록의 내용이나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컨테이너이자 기록 구조인 매체에 대해, 생산과 수용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생산과 수용 매커니즘은 문화재현 매개로서 기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어와 이미지가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다르듯 매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록이 가진 문화의 재현가능성을 완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록의 재현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기록이 무엇을 재현하는지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해야 대상을 재현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은 문자기반의 문서, 사진이나 영상 및 회화와 같은 이미지, 박물관 등이 있다. 이 중 문서는 주로 특정 언어에 기반한 문자 형태로 생산되며,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장비에 의존하여 생산된다.

이중 문자기반의 기록은 언어화라는 추상화 과정을 거치므로 왜곡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소쉬르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가 대상을 재현해야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대상과 단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또한 언어에 기초한 자의성은 인간이 대상을 인지하는데 있어 범주화하

13) T. Cook,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Presented at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Conference*, 2000, 8.18.
(<http://www.mybestdocs.com/cook-t-beyondthescreen-000818.htm>)

여 인식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재현에 있어 문자로 인한 자의성과 왜곡가능성을 주장한 셈이다.

문자 기록은 소속된 문화에 의존한 방식으로 추상화하여 생산한 기록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문화를 현재에 기록하는 것과 해당시점에 기록하는 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렇듯 문자기반의 재현 방식은 생산자의 인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상화의 과정으로 인해, 왜곡과 누락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문자기록에 사회적 문화체계가 반영된다는 특징은 문자기록을 문자 그대로만 읽기보다 해당문화를 고려하여 해석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합하여 이해해보면 문자기록의 왜곡이나 누락이 완전한 재현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러한 특징이 고유의 재현가능성을 부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이미지 기록도 문자기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주형일은 영상이 부여받은 임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¹⁵⁾ 해석해보면 사진이 객관적인 형태로 대상을 재현한 것이기보다 새로운 창조물임을 의미한다. 기호학적으로 사진을 해석할 때에도 사진은 도상(Icon)이기보다 지표(Index)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¹⁶⁾

심지어 카메라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카메라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는 속임수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¹⁷⁾ 사진은 객관적인 형태의 기록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개입된 주관적 매체라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로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의

14)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 언어학 연구』, 민음사, 2006, 85쪽.

15) 주형일, 「포스트포토그래피 시대의 사진을 통한 현실 재현의 문제」, 『언론과사회』 제13권 제3호, 2005, 37-70쪽.

16) 주형일, 『사진 - 매체의 윤리학, 기호의 미학』, 인영, 2006, 91쪽.

17) 마샬 맥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342쪽.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진압대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동일한 현장을 서로 다르게 재현함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진은 추상화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지되어 수용자가 문자에 비해 즉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객관적이라는 인상은 기술적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주장마저 힘을 얻고 있다.¹⁸⁾ 사진이 객관적인 재현도구가 아님을 지적한 셈이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을 추구하는 기록사진 분야에서는 사진에 주관성을 배제하고 재현에 충실하기 위해 기록사진 생산자의 의무를 제시하였다. 박주석은 기록사진에 대해 1)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2) 정확한 시대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3)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고 4)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러한 주장은 사진매체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지만, 반대로 기록 생산자의 적극적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천 조각에 미국인에게 실제 성조기 대신 ‘미국 국기’라고 문자로 쓰면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같은 감정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사진이 주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지된다는 특성을 드러낸다.²⁰⁾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문자에 비해 추상화과정이 생략되어 더 높은 전달력과 상징성을 지니지만, 주관성이 높으므로 매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록으로 생산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인 박물관형 기록은 상징성이 극대화된 형태의 기록으로 문화 재현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현재도 집합 기억을 전송하는 기재로서 박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념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생산 이후 의도적으로 의미만을 추

18) 빌렘 플루서,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47쪽.

19) 박주석, 「한국 기록사진의 개념 형성과 전개」,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169-208쪽.

20) 마샬 맥클루언, 김상호 역, 앞의 책, 2011, 168쪽.

가하여 재현매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에 조각상과 깃대를 추가하여 참전에 대한 명예를 부여하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²¹⁾

마지막으로 문화재현 매개로서 기록에 접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록의 ‘실물 가치’이다. 기록의 실물 가치는 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록이 지닌 원래 독특한 형식이나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가치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기록의 미적가치나 원본만의 증빙력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는 가치를 말한다.²²⁾ 이는 예술작품의 원본에 존재하는 ‘아우라(Aura)’²³⁾와 유사하게 해석되는 가치로, 기록이 지닌 재현가치를 수용자에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접근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기록의 이러한 특성은 기록에 대해 증거나 정보의 형태로 접근할 때보다 재현매개로 접근할 경우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록을 이용하여 행위나 대상을 단순히 설명하고 증거하는 한정적 재현방식에 비해 문화재현 방식은 해당 기록을 더 넓은 차원에서 사용하게 때문이다. 기존 기록학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왜곡이나 상징성, 인지단계 등에 대한 문제는 기록의 문화재현가능성이 주목받을수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에 대한 기록관리 연구현황

최근 기록학계는 문화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기존 행정기록에 대한 방법론을 재사용하거나, 매뉴스크립트 수집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차용하는 방식에

21) 필립스미스,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앞의 책, 2008, 394쪽.

22) 한국기록학회, 앞의 책, 2008, 155쪽.

23) 발터벤야민,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길, 2007, 105-106쪽.

며물러 있다.

초기 문화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는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익한은 마을 아카이빙과 일반 기록관리이론을 근거, 핵심기능, 주체, 조직기구, 수집기관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²⁴⁾ 그는 마을 아카이빙은 마을의 공동체성과 같은 문화적 이유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며 무형문화자원이나 연극 등과 같이 의도된 기록 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록관리자의 기록생산 방법론이나 문화적 기록의 특성을 이용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설문원은 역시 로컬리티를 주제로 참여형 아카이빙의 방식과 유형·사례를 제시하였다.²⁵⁾ 그는 특정한 주체가 아닌 참여의 방식을 통한 아카이브를 제시하였으나, 참여형 아카이브 설립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기록화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아카이브의 집단기억적인 성격과 로컬리티적 성격을 언급하면서, 다큐멘테이션전략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리티를 기록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기록관리자의 기록생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근거한 협업을 강조하였을 뿐 기록생산에 따른 관리방법론의 변화를 간과하였다.

권순명과 이승휘 역시 로컬리티의 방식으로 문화기록에 접근하였다. 지역성의 개념을 분석하고 분석된 요소에 따라 주제를 설정하여 기록의 유형을 제시하고 수집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²⁷⁾ 다른 연구와 마

24)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51-172쪽.

25)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3-44쪽.

26)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03-149쪽.

27) 권순명·이승휘,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찬가지로 당위성을 강조하여 그 절차나 방법론에 대한 근거는 소략히 제시하였다.

손동유와 이경준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였지만,²⁸⁾ 사실상 그 당위성과 유형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반면 윤은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란 주제로 마을아카이브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공동체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쟁점과 역할을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²⁹⁾ 김화경 역시 마을 아카이빙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록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카이브 운영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마을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실행에 관심이 집중되어 실제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문화유산의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권소현과 김익한은 강릉 단오제에 대한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강릉 단오제의 요소를 분석하고, 수집대상을 본자원과 보조자원으로 구분하여 기록화방법론을 제시하였다.³¹⁾ 문화자원을 일종의 세트라는 틀에서 수집·관리하려는 방법론으로 다소 기계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백주현과 김순희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록을 영상과 사진, 문서 등으로 구분한 후 관련 기록의 수집을 주장하였는데³²⁾ 전문가의 참여나 3차원 영상기법 적용 등을 기계적으로 나

2009, 41-84쪽.

28) 손동유·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제35호, 2013, 161-206쪽.

29)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3-37쪽.

30)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143-161쪽.

31) 권소현·김익한,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173-214쪽.

32) 백주현·김순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77-97쪽.

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정은진은 연극에 대한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연극을 기획과 준비, 그리고 공연, 공연 후로 구분하여 기록화 대상을 분석하였다.³³⁾ 이는 프로세스 분석론을 문화기록에 적용시킨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장은 3개의 컬렉션(루즈벨트 미국 전 대통령 비서실 컬렉션, 전통적 미국인(native american) 컬렉션, 폴라베어 컬렉션)의 기술(description)을 중심으로 출처와 원질서,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현가능성에 주목하였다.³⁴⁾

대부분의 연구나 사례들은 기존 기록관리 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출처준중의 원칙, 집합적 관리, 계층적 관리, 다큐멘테이션 전략과 같은 기록관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기록의 생산을 통한 수집 전략이나 기술적 방법론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었다.

남겨진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분류하여 서비스하는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 탓도 있지만, 수집자에 의해 발생하는 기록생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기록관리원칙과의 충돌이나 재현의 관점에서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3. 문화 아카이빙 방법론의 과제

1) 근본적 문제-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언급했다시피 학계의 문화아카이빙 사례는 다양한 편이라 할 수 있

33) 정은진,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35-78쪽.

34) J. Zhang, "Archival representa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Vol. 10, Issue 1, 2012, pp.4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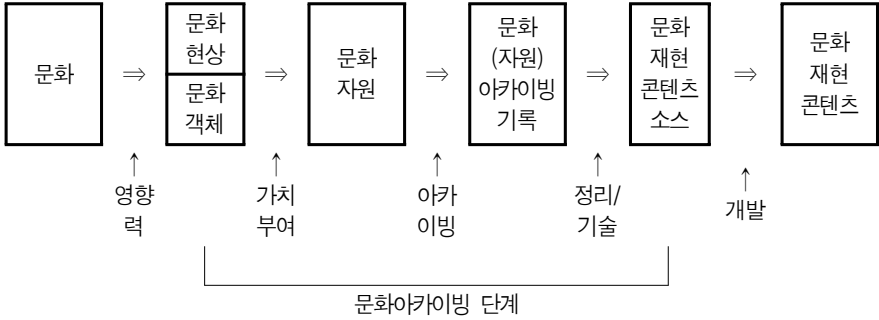
다. 문화유산에서부터 예술, 일상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아카이빙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록관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자칫 이론 없이 실행한 나머지 일종의 캠페인 수준에 그칠 우려도 적지 않다.

문화 아카이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시작단계는 무엇을 아카이빙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아카이빙할 대상이 정해져야만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아카이빙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회화, 조형과 같은 예술작품, 공연 형태, 일상까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카이빙은 무엇을 대상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방법론의 근본 원칙 수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근본원칙을 수립하여야만 수집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아카이빙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아카이빙 방법론은 문화와 기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문화 아카이빙에서 문화재현콘텐츠까지 과정은 우선 인간의 의식체계 속에 녹아져있는 문화가 문화현상과 문화객체의 형태로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문화현상과 객체는 다시 수용자의 가치부여로 인해 문화자원이 되고, 다시 이를 아카이빙하면 문화(자원)를 아카이빙한 결과물, 즉 기록이 된다. 이는 다시 정리와 기술이라는 자원화 과정을 통해 문화재현콘텐츠를 위한 소스가 되며, 소스를 개발하여 문화재현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림 1〉 문화에서부터 문화재현콘텐츠까지의 과정



문화에서부터 문화재현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카이빙 방법론은 문화현상이나 객체를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는데서부터 실제 아카이빙한 후 자원화 과정을 거쳐 재현콘텐츠 소스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문화 아카이빙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대상의 모든 것을 아카이빙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재현대상에서 아카이빙 할 요소를 가능한 수준으로 한정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아카이빙의 실행은 가능한 다양하고 많이 수집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대상의 가치를 원하는 모습으로 재현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카이빙은 대상의 재현을 목적으로 함을 충분히 인지해야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아카이빙은 일종의 서비스인 콘텐츠의 모습으로서의 재현을 염두에 두고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기록의 증거와 정보 중심의 일반적인 기록관리방법론과 다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문화아카이빙은 대상을 보존·전승하고 향유하기 위해 실행되므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수집에서부터 관리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아카이빙 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은 문화적 관점의 ‘비교’

에서 출발하여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와 상대와 다른 것’, ‘상대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른 것’, ‘과거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른 것’,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 희귀한 것’ 등 비교의 관점에서 아카이빙 할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무엇인가를 아카이빙하는 방식은 나, 혹은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존·전승하여 향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유·무형문화재와 같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근거를 통해 아카이빙할 수도 있지만, 문화유산이나 일상을 아카이빙하는 것은 보통 명쾌한 기준이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에서 출발하여 남겨야 할 가치를 찾는다면 타당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수용자를 선 고려하여 아카이빙 대상을 선정해야 함을 들 수 있다. 문화아카이빙은 현재 혹은 미래의 고객이 향유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므로, 정답을 찾기보다 수용자가 원하는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담아 재현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문화 아카이빙은 수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재현해내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이지 외관을 그럴듯하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이나 공동체처럼 수용자 집단의 연대의식이 높은 집단의 문화를 아카이빙하는데 있어서는, 수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관리자,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용자가 원하는 가치와 아카이빙 대상, 가능한 기록 등의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면 아카이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재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대상에 접근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기록화할 대상과 기록화한 것의 엄격한 구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카이빙은 문서와 사진, 영상만으로 실행되지 않으므로 ‘실물’이 기록으로 포함될 수 있는

데, 이 경우 아카이빙할 대상과 아카이빙 한 결과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급했다시피 대상을 분명히하고 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교하게 아카이빙할 대상과 그 결과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특정 회화를 아카이빙할 경우 맥락에 따라 다른 회화가 아카이빙한 결과물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대상이 아카이빙할 대상과 아카이빙한 결과물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증거를 위한 관리와 향유를 위한 관리의 충돌 극복

일반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작업은 기록의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록의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이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보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적 관리나 계층적 관리가 권고되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원칙이나 방식들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포착된 맥락(출처와 원질서 등)에 대해 수집에서부터 최종처분 시까지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아카이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를 보존하는 한정적 재현보다 대상의 확장된 재현이 아카이빙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 아카이빙이 생산자나 기능에 주목한 출처나 원질서의 개념보다 재현대상을 중심으로 한 재현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현재 시도되는 문화아카이빙은 기록관리자의 적극적 생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이 수집에 포함된다는 관점은 기존

35) T. Cook,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기록관리 전통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쟁킨슨이 주장한 ‘불편부당한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기록관리자가 생산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의 의식과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불편부당한 기록은 생산자의 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록이기보다 생산자가 특정한 의도 없이 반영한 가치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기록으로 해석가능하다.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기록을 생산하게 된다면 불편부당한 기록을 생산할 수도 없고 소장기록의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한다.³⁶⁾ 이러한 이유로 과거 구술기록도 온전한 기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왔으며, 아카이브에서 관리된 이후에도 기존의 기록과 별도로 관리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⁷⁾

관리단계에도 관리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을 기존의 생산자나 행위 출처를 적용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혼란을 겪을 확률이 높다. 사실상 관리자라는 동일한 출처나 아카이빙이라는 동일한 행위에서 수집한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맥락의 왜곡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존의 문화아카이빙에서는 일방적으로 재현대상을 기준으로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제안되는데, 이는 출처주의나 원질서 준용이라는 관점과는 배치된다.

문화아카이빙 결과물을 관리하는 방식과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경우 콜렉션(Collection)이라는 개념을 통

36) 붐스는 아키비스트의 능력은 환경에 의해 형성된 생활 경험에 의지함을 주장하였다.

H.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Vol. 24, 1987, 재인용: 오항녕 편역, 앞의 책, 2005, 159-222쪽.

37) 김은영·강규형, 「구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방안 연구 : 논리적 정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2012, 229-257쪽.

해 동일한 사건이나 주제를 기준으로 기록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록이 가진 최초의 맥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활동이나 주체에 대한 출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집합이 주를 이루어 기록의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궁극적 이유는 기록 맥락에 대한 훼손을 염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기록의 재현가능성은 기록의 분류나 정리보다 기술(Description)의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기획에 의한 적극적 재현이 언급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³⁸⁾

하지만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실행한 아카이빙의 경우에는 공공기록과 매뉴스크립트, 생산기록까지 다양한 기록을 염두에 둔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가령 국가적 문화유산 기록은 국가에서 생산한 보호 및 보수 등에 대한 공기록, 주요한 사건 등에 대한 매뉴스크립트, 시각적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생산기록 등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는다면, 기록 집합의 의미를 지니기보다 단순한 혼합물로 간주되기 쉽다.

기록관리는 처분단위와 기술단위, 계층구성을 포함하는 분류체계 수립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기록 집합에 대한 기술은 의미 있는 집합으로서, 단순한 기록의 모음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문화아카이빙에 있어서 기록의 집합과 계층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위한 관리와 향유를 위한 관리의 사이에서 충돌지점을 이해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38) J. Zhang, “Archival representation in the digital age” pp.45-68.

3) 수집방식으로서 생산의 타당성 확보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관리 전통에서 관리자에 의한 '생산'은 수집으로 생소한 방식이다. 문화아카이빙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대상을 중심에 두고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대상의 재현에 필요한 기록이 처음부터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수집으로서의 생산은 기존 수집방식만으로 재현에 필요한 충분한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꺼내든 방법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아카이빙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강조된 나머지 기록관리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마도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구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록의 왜곡에 대한 우려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마을이나 일상을 아카이빙하는 시도 하에서는 생산자와 관리자, 수용자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기록생산이라는 수집 방식은 소장기록의 불편부당성 이외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쟁점이 존재한다. 기록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이미지와 영상, 소리 중심의 방식으로 귀결되는데, 결국 대상을 현재적 관점에서 고착화시켜 이미지화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거나 손쉬운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시적 재현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자가 기록을 생산과정에서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한 '선별'이 뒤따른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현하고자 하는 특정 문화적 대상은 완전하게 재현될 수 없으므로,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

39)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형태를 설정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아키비스트'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기록화할지 선별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기록을 이용한 재현방식은 생산자의 선별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현에 개입하게 되지만, 기록을 생산한다면 그와 동시에 재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재현의 본질을 선별과 해석으로 본다면, 재현은 수집된 원 생산자의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관리자로서의 생산자를 최대한 감춰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⁴⁰⁾

사회의 재현이라는 목적에서 나온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경우에도 설문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술을 제외한 기록 생산 방식은 고려되지 않았으며⁴¹⁾, 조직적인 수집과 기술을 통해서만 재현을 시도하였다. 쉘렌버그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과거를 구성하고자 했던 사무엘스 역시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수집정책을 근거로 한 기록의 정리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였다.⁴²⁾ 당시 능동적 방법론으로 평가받았던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이후 비관론자들에게 수집된 기록의 유기체적 속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는데,⁴³⁾ 이는 더욱 능동적 방식인 적극적인 생산이 시도되는 문화아카이빙에 고민해야할 과제를 던지는 사례라 하겠다.

이에 더해 아카이빙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록 생산은 기록관리자에게 ‘충분히 전문가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하게 된다. 생산된 기록에 대한 기술은 기록관리자의 전통적 영역이었지만, 문서나 영상을 생산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미지나 영상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왜곡을 최

40) 이와 관련하여 가다머는 재현자가 대상에 대한 판단을 재현물에 반영시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숙, 「곰브리치의 지각과 그의 회화적 재현」, 『미학예술연구』 22호, 2005, 39-69쪽

41)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통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03-149쪽.

42) H. W. Samuels, “Who control the past” *American Archivist* Vol. 49, 1986, 재인용: 오항녕 편역, 앞의 책, 2005, 223-250쪽.

43) 설문원, 앞의 글, 2010, 103-149쪽.

소화시킬 수 있는 구도나 촬영기법 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이론적 지식이 요구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록에 '행위의 증거'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생산기록은 사실상 기록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구술이나 촬영은 '구술하고 촬영하는 행위'의 증거이지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증거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는 구술이나 촬영이 행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기록이 아니라 재현자체를 목적으로 생산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술은 사회적·개인적 배경 하에서 면담자의 기억에 대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술기록은 휘발성이 강한 사람의 기억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적 요소나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⁴⁴⁾, 이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동시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재로 작동하기도 한다.

4. 문화 아카이빙의 재현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1) 문화 아카이빙을 위한 새로운 이론체계 마련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아카이빙은, 증거와 정보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기록관리에서 벗어나 기록을 이용해 문화자원을 재현하여 향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 시도하던 일종의 조직적 수집방법론과 달리, 향유를 위한 아카이빙이다.

44)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89쪽.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걸맞는 이론적 기반은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이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적극적 생산을 포함한 아카이빙의 형태는 찾기 쉽지 않다. 현재 문화아카이빙은 이론적 토대위에 실행된 성과라기보다 사실상 문화를 자원으로 보는 시대적 경향과 사회적 요구에 조응한 프로토타입(prototype)에 가깝다.

문화아카이빙을 실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논의는,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같은 기록학의 기본이론에 대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문화자원의 재현과 향유를 위해 실행된 현재의 문화 아카이빙은 적극적 기록 생산을 용인해왔고, 분류와 정리에 있어서도 기록관리 원칙의 엄밀한 적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집과 재현을 위한 일종의 기계적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나,⁴⁵⁾ 로컬리티 재현을 위해 ‘지역출처’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는⁴⁶⁾ 기존 문화아카이빙의 고민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생산자 혹은 기능출처는 특정 대상이나 행위를 재현하는데 필요한 맥락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고, 수집기록과 생산기록의 극단적 구분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출처의 개념을 넘어 문화적 특성,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출처개념을 적용시키는 방식이나, 관리체계와 활용체계를 이원화한 멀티분류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아카이빙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존재하거나 하나의 유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록관리의 새로운 방식 중 하나로 정착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문화아카이빙에 있어서 대상의 분석에서부터 아카이빙할 범위의 선정, 수집방안, 재현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와 재현에 대한 근본적 접근에서부터 수집과 재현의 관계, 관리방

45) 권소현·김익한, 앞의 글, 2010, 173-214쪽.

46) 권순명·이승휘, 앞의 글, 2009, 41-84쪽.

법론 등 다양한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재현은 본질적으로 선별과 왜곡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방법론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아니라 구체화된 대상의 구조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선정행위는 하나의 문화현상에 대한 기록화할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문화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아카이빙하는 것은 부여된 가치를 포함하여 아카이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상과 범위선정이 가치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재현은 본질적으로 재현주체에 의해 왜곡되고 수용자의 해석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하지만 왜곡은 기록의 매체적 특성에서 본 것처럼 의미없지 않다. 대상이 지닌 가치는 수용자의 해석에 의해 소비되는데 이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선이야말로 문화 아카이빙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기록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 방식으로 과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불편부당함을 지나치게 지향하기보다 열린 자세가 문화와 문화기록을 대하는데 있어 더욱 합리적인 방식일 것이다.

나아가 문화 아카이빙의 특성상 ‘권력’의 방식에서 접근하는 공공기록물보존소의 개념보다 수용자에게 가치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을 수집·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전승하는 역할로서 아카이브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아카이브는 공적 권력에 의해 실행되는 공개와 폐기가 대중기억의 통제와 연결되어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⁴⁸⁾ 문화아카이브는 완전한 공개와 수용자 참여와 더불어 수용

47) J. M. Schwartz & T.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Vol. 2, Issue 1-2, 2002, pp.1-19.

48)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473-477쪽.

자가 원하는 가치재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카이브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는 수용자의 향유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에 의한 기록의 선별과 배치는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에 근거한 스토리텔링방식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기록을 이용한 픽션을 제작하여 더 쉽고 편하게 아카이빙 당시 원하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민속박물관 전시에서 과거의 옷가지나 소품을 각각 기술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가상스토리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에 해당한다.

문화 아카이빙에서는 그 시작에 해당하는 수집에서부터 스토리와 수용자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수용자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아카이빙해야 하는 가치가 결정되고, 그 가치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기록이 수집되고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카이빙된 기록은 정리와 기술의 자원화 과정을 거쳐 수용자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고 스토리텔링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하거나 미래의 수용자를 상징하여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해도 수용자를 고려한 현재적 가치부여 자체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카이빙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현단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현단위’란 대상을 아카이빙하는데 유의미한 단위로 가치를 재현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인 가장 작은 단위이자, 계층화된 재현에서 최하위단위로 설정 가능하다.⁴⁹⁾

예를 들어 나의 일상을 아카이빙한다면 먼저 수용자를 미래의 나, 자식, 후손, 불특정한 미래세대 등 중에서 선정하고 이들에게 중요한 가

49) 류한조·이희숙, 「재현 중심의 기록학 - 담기, 관리하기, 보기」,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3-40쪽.

치를 찾아야 한다. 미래의 나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념하고 싶은 것에 가치를 두겠지만, 불특정한 후손은 나의 직업군과 연령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가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에서 출발하여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각각 재현단위로 삼아 자기 완결적으로 아카이빙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빙 결과물은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으며, 계층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수용자 중심적 재현단위를 적용한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설정도 빼놓을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된다. 재현과 수집의 방식과 대상자체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메타데이터가 설정되어야 한다. 재현대상마다 요구되는 메타데이터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아카이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언급한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논의도 ‘재현단위’ 설정 방법론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향후 재현의 방식이 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기록이 추가·보완되고 재현이 확장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아카이빙할 것인가 이후 가장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체계 마련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카이빙 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이다. 향유를 원하는 수용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소멸가능성과 희소성, 문화적 가치 등을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재현을 기반으로 한 다중분류체계 적용

앞서 언급하였듯 재현을 목적으로 한 기록관리는 재현에 용이한 제반작업을 요구한다. 재현에 적절한 분류와 메타데이터, 기술 등이 안정

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재현방식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분류체계는 재현에 사용되는 기록의 적절한 제공과 필요한 기술(Description)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기록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출처와 원질서, 집합적 특징을 포함하여 재현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⁵⁰⁾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관리체계는 물리적 분류와 논리적 분류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가 없으며, 둘 이상의 분류체계도 적용가능하다. 다중분류체계는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를 보존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록의 경우 목적별 분류,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등 다중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아카이빙 기록은, 기존의 출처나 주제중심의 분류체계에 더해 재현중심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록건-(기록철)-하위재현단위-상위재현단위’ 형태로 재현이 서비스되는 형태로 기록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새로운 재현단위나 기록이 추가됨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분류체계 설계는 수집대상 선정과 콘텐츠기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 재현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적용한다면, 각 계층마다 재현에 적합한 기술을 실행할 수 있다. 각각의 기록이 그 출처와 맥락에서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의 재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방식은 계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현중심의 분류체계는 타 분류체계에서는 혼재하기 어려운 생산기록과 수집기록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수집을 분류체계까지 이어가므로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게 된

50) J. Zhang, "Archival representation in the digital age" pp.45-68.

다. 기술을 통해 재현에 필요한 출처와 원질서를 충분히 표현하고, 재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집합화·계층화하여 관리할 수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재현중심의 분류체계는 재현분류체계 개발과 적용이 곧 재현 콘텐츠 개발의 기초작업으로 기능하게 된다. 재현중심의 분류체계에서 각각의 분류체계 단위가 기술과 더해져 곧 문화재현콘텐츠의 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재현중심의 분류체계는 ‘증거를 재현’하는 역할을 넘어 ‘가치를 재현’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존 분류체계는 기록의 증거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는 곧 기록의 ‘지속적 재현가능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⁵¹⁾ 하지만 재현중심의 분류체계 개발은 기록의 재현가능성을 확장시켜 증거가 아니라 대상을 지향하는 재현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의미단위로 계층화된 분류체계는 OSMU(One Source Multi Use)가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모가 늘어날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문화재현콘텐츠 개발 방법론 수립

문화재현콘텐츠 개발은 사실상 문화아카이빙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기록학계의 재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술(Description)이나 검색도구의 방식으로 접근해왔으나⁵²⁾, 콘텐츠형태의 재현방식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로 기존의 기록정보콘텐츠 역시 일반적으로 관련 컬렉션에 대해 기술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문화적 재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컬렉션형태

51) G. Yeo, "Concepts of record(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pp.315-343.

52) E. Yakel,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Vol 3. Issue. 1, 2003, pp.1-25.

는 특정유형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서비스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다양한 기록을 통해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문화 아카이빙 범주 내에서도 최근 수집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수집의 역이자 최종결과물에 해당하는 재현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하겠다.

재현콘텐츠의 효율적인 개발은 문화아카이빙 지속과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방법론은 수집과 분류 체계 개발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현대상의 가치를 계층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다. 대상에 적용한 가치평가체계를 잘 전달하면서, 분류체계 수립과 정리를 통해 아카이빙한 기록을 콘텐츠 소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집이 대상을 아카이빙하는 이유와 논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라면, 콘텐츠는 선정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 콘텐츠는 단순한 열람과 다르게 수집에서부터 고려한 기획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한 플롯과 프레임을 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기록을 조직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기획이라는 행위가 사실을 왜곡하여 기록의 증거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통해 사실을 전달한다는 역사서 자체가 일종의 기획이므로 이를 긍정하는 입장도 찾아볼 수 있다. 콘텐츠의 본질은 플롯이며 플롯은 기획과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⁵³⁾ 오히려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콘텐츠야말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재현콘텐츠에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릉 단오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제례와 굿, 극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의미 있는 재현단위로 분해하고 콘텐츠화 할 수 있도록 기획과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무당굿의 경우에는 ‘신과

53)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16쪽.

기원', '준비과정', '실제 곳'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유래부터 구성을 포함한 의미 있는 재현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해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콘텐츠 자체로 의미를 지니면서도 계층적으로도 재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최소 단위를 구성하고, 이를 수집 시부터 관리, 서비스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는 재현단위는 재현의 효과를 높이고 관리의 효율을 위해 하위의 세부분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개발에 관해서도 방법론 수립이 필요하다. 타 분야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우선 스토리텔링의 적용을 들 수 있다. 대상의 가치와 함께 원질서 및 출처를 잃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영화와 연극에서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방식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매체자체와 인지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이다. 사용자가 느끼는 몰입과 재미에 관한 부분과, 문자와 사진, 영상, 소리, 박물관 등이 정보전달에 있어서 각각의 매체특성을 콘텐츠 개발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원본 기록이 가지는 아우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부분은 ICT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현 자체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과 이론을 차용해야 한다. 왜곡이나 선별과 같은 재현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완전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방법론 개발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재현 과정에서 닳음에 집착하기보다 수용자의 인식체계를 건드리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⁵⁴⁾ 또한 전통적인 사용자 연구도 중요한 과제

54) 오종환, 「재현과 허구의 관계에 대한 고찰-회화적 재현을 중심으로」, 『미학』

인데, 이는 사용자의 성향과 연령, 전문성에 따라 콘텐츠 개발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5. 나가며

문화아카이빙은 기록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매력적 주제이다. 사회적 요구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기록관리가 친숙해지고,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⁵⁵⁾

최근 국가 중심적 기록관리로 인해 소수자의 기록관리가 배제되는 경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⁵⁶⁾ 지배층이 아닌 보통사람의 기록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전체를 위한 기록관리나 보편적 기록관리는 지배층을 위한 기록관리와 다름 아닐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해야만 흘러 넘길 수도 있는 소중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중앙의 시각에서 특정 문화의 가치를 매기기보다, 수용자가 직접 가치를 부여하고 아카이빙한다면 소중한 기록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해외에서는 지역과 국가, 과거와 현재, 서사와 대항서사 사이의 기록을 잘 엮어 집합기억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도 최근 관심을 받고

22, 1997, 110-111쪽.

55) “박 대통령,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 크기가 국가경쟁력 직결””, 이데일리, 2013.5.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220166602805640&DCD=A00703&OutLnkChk=Y>>)

56) 박건홍은 거인의 아카이브에서 난쟁이의 아카이브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10-12쪽.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가깝다.⁵⁷⁾ 국내 동향 역시 문화아카이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기보다 사회적 관심에 의해 실행이 앞서나간 모습에 가깝다. 필요에 의해 실행이 우선되다 보니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기계적 수집이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문화아카이빙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문화아카이빙은 기존의 기록관리체계의 경험만으로 정착될 수 있을 만큼 기존체계와 유사하지 않으며, 그만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문화 아카이빙은 기초부터 다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주제에 가깝다. 기록관리방법론 내에서 모두 소화해내기보다 학제간 융합이 필요한 연구주제이며, 인문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아카이빙에서는 기록의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보다 문화재현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현가치를 최대한 담아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재현가치는 수용자로부터 찾아야하며, 대상의 분석과 범위선정, 재현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모든 작업의 시작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자의 기록 생산이라는 새로운 상황도 감수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과 수집한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또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관리함과 동시에 잘 보여주기 위해 관리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기록관리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실행을 통한 경험 축적뿐만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57) J. A. Bastian, "The records of memory, the archives of identity: celebrations, texts and archival sensibilities" *Archival Science* Vol 13. Issue 2-3, 2013, pp.121-131.

ABSTRACT

A Study of Establishing Culture Archiving

Ryu, Han-jo

The culture archiving has attracted the public increasingly because of interest in culture and field extension of archival science. So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nd many attempts have been tried to in everyday life archiving and village archiving.

Although many studies explain appropriateness and give examples, theoretical study is rarely conducted. This Study explains the representation of the records in theoretical ways and the process of culture archiving.

Also, this study reconsiders the documenting by archivists and suggests a value-based archiving method. For proving validity of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cultural contents is usable.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discussion of the development of culture archiving methods.

Key words : culture archiving, everyday life archiving, village archiving, archival representation, documentation.